2026.03.06.(금) Signal Digest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SignalDigest

'Signal Report'의 축약 버전으로 전날 시간외 특징주와 당일 주요 이슈까지 한 장의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 TODAY ISSUE >

'Today Issue'는 당일 Signal report의 전체를 최대한 축약한 버전입니다.
전체 시그널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갑작스런 일정이 생긴 분들은 'Today Issue' 코너만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주식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년을 공부해보면, 2년차부터는 '주식은 반복이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의 역사를 알다보면 '다음에 생길 이벤트'를 알게 되고, 미리 오를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방산

#삼성전자 #엔비디아
삼성전자, 소캠2 첫 양산...엔비디아 '베라' 탑재 경쟁 본격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192기가바이트(GB) 제품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고, 마이크론은 256GB 제품을 고객사에 샘플로 출하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192GB 소캠2를 공개하며 AI 메모리 포트폴리오 확대 방침을 밝혔다.
엔비디아가 이달 공개할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Vera Rubin)'의 중앙처리장치(CPU)에 소캠2 모듈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3사 모두 LPDDR5X 기반 구조로 개발한 만큼 성능 격차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베라 CPU에 각 회사 제품을 얼마나 배정하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3사 모두 준비는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생산능력이 큰 삼성전자가 물량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주: 티엘비,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써키트, 제주반도체, 쓰리에이로직스, 에이팩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엑시콘, 티에프이, 센서뷰, ISC, 오킨스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HBM
젠슨황·최태원 美 심장부서 재회...HBM 판 키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차세대 엔비디아 플랫폼에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황 CEO와 논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가 탑재되는 '베라 루빈' 플랫폼의 개발 상황과 내년에 판매되는 베라 루빈 울트라 AI 가속기의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차세대 HBM인 HBM4E가 들어간다.
최 회장은 황 CEO와의 재회를 통해 반도체 외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SK그룹이 반도체뿐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양사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관련주: 한미반도체, 와이씨, 네오셈, 와이씨켐, 테크윙, 유니테스트, 디아이, 아이에스티이, 피엠티, 이오테크닉스, 켐트로스, 아이엠티, 제너셈, 워트, 엠디바이스, 미코, 마이크로투나노, 하나마이크론, 샘씨엔에스, 국전약품**

#스페이스X

모든 길은 우주로 통한다…스페이스X '빅뱅'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24년 6130억달러(약 900조원) 규모에서 2040년대에는 1조달러(약 1470조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다음 수순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다. 당장 스페이스X 가치만 놓고 보면 IPO 흥행에 이견을 달긴 어렵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150억달러,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이 약 80억달러에 달했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이후 95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해 광대역 위성 인터넷 가입자 9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 위성 운영사다.

- **관련주: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증권, 아주IB투자, 스피어, 에이치브이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세아베스틸지주, 컨텍, AP위성, 와이제이링크, 모델솔루션, 센서뷰, 나노팀, 솔루엠, LK삼양, 루미르, 이녹스첨단소재, 신세계 I&C, LG에너지솔루션, 성우**

#방산

"천궁-Ⅱ 더 빨리 달라"…UAE, 조기 공급 요청

UAE는 이란의 공격 이후 방공무기 수요가 급증하자 계약된 납기보다 앞당겨 천궁-Ⅱ 포대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공급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계약 국가에 공급해야 할 물량이 이미 정해져 있고, 군사 충돌이 격화한 중동 지역으로 장비를 이송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UAE는 포대 조기 공급이 어렵다면 소진되고 있는 요격미사일이라도 납기보다 먼저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UAE는 2022년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Ⅱ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된 상태다.

- **관련주: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엠앤씨솔루션, 아이쓰리시스템, 파이버프로, 퍼스텍, 한일단조, 코츠테크놀로지, RF시스템즈, 삼현**

< 장 후 시간 외 주요 사항>

-거래대금 (단위: 억)

●LIG넥스원 (NXT +5.38%)(상한가) / 한일단조 (+9.95%)(15) / 퍼스텍 (+7.90%)(23) / 빅텍 (+5.00%)(26) / 코츠테크놀로지 (+4.66%)(1) / RF머트리얼즈 (+4.62%)(0.7)

K-방산의 위용…"'UAE배치' 천궁-Ⅱ 요격 성공률 96%"

UAE, 韓 정부에 소진 중인 '천궁-Ⅱ 요격미사일'이라도 조기 공급 요청…韓, 포대 조기 공급 요청엔 난색

UAE는 이란의 공격을 받아 방공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한국 정부에 아직 공급되지 않은 천궁-Ⅱ 8개 포대를 계약서에 명기된 납기보다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군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계약을 체결한 나라에 공급해야 하는 예약 물량이 있는데다, 현재로선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는 중동 지역으로 포대를 이송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에 UAE는 포대 조기 공급이 어렵다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요격미사일이라도 납기보다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측은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UAE는 2022년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Ⅱ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됐다.

●RFHIC (NXT +9.38%)

(26.03.04)중동전쟁 확대 우려 … 방산·에너지주 목표가 껑충

RFHIC는 LIG넥스원을 통해 천궁-II에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를 공급하고 있어 실적 호조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은 4일 RFHIC 목표주가를 기존 7만5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레퍼런스가 확보되면 추가 수주 기대감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서뷰 (+6.28%)(1)
센서뷰, LIG넥스원과 11억5200만원 규모 EJ 안테나 공급 계약 체결
센서뷰, LIG넥스원과 12억2400만원 규모 CDDF 안테나 공급 계약 체결

●한화솔루션 (NXT +8.90%) / 대주전자재료 (NXT +4.78%)(상한가)
한화솔루션 주가 다시 불뿜나, '스페이스X 상장'에 미국 관세 반사수혜 기대감까지
KB증권은 전날 보고서에서 "6월 스페이스X IPO는 우주 산업 재평가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며 상장 시점이 고저이 아닌 시작일 것"이라며 "한화솔루션 등 앞으로 우주 산업 관련 매출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바라봤다.KB증권은 "100GW/년 우주 태양광 시대가 오면 매출 38조 원, 영업이익 15조 2천억 원 규모 시장이 열린다"며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을 고려하면 태양광 선두 업체인 한화솔루션은 영업이익 2조5천억 원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화솔루션 목표주가는 6만7천 원으로 제시했다.

●한미반도체 (NXT +6.04%) / 에프에스티 (NXT +7.39%) / 원익QnC (NXT +5.54%) / 두산테스나 (NXT +4.87%)
삼성 추격에 젠슨 황 손잡은 최태원...HBM 패권 전쟁 본격화
JP모건 "삼전·SK하닉 여전히 좋다...코스피 7500 전망"
JP모건은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6000포인트를 유지하며, 글로벌 강세장 복귀와 개인 자금의 국내 회귀가 지속될 경우 최대 7500포인트까지 상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업 이익 전망이 여전히 상향 추세이고,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과열됐던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이 조정 과정을 통해 역사적 평균 수준에 가까워지며 부담도 완화됐다"고 덧붙였다.추천 업종으로 여전히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메모리 반도체를 꼽았다. 자사주 소각·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지주회사와 보험도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티엘비 (NXT +5.06%) / 심텍 (NXT +3.61%)
삼성전자, 소캠2 첫 양산...엔비디아 '베라' 탑재 경쟁 본격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192기가바이트(GB) 제품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고, 마이크론은 256GB 제품을 고객사에 샘플로 출하했다고 발표했다.SK하이닉스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192GB 소캠2를 공개하며 AI 메모리 포트폴리오 확대 방침을 밝혔다.엔비디아가 이달 공개할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Vera Rubin)'의 중앙처리장치(CPU)에 소캠2 모듈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3사 모두 LPDDR5X 기반 구조로 개발한 만큼 성능 격차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베라 CPU에 각 회사 제품을 얼마나 배정하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3사 모두 준비는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생산능력이 큰 삼성전자가 물량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테마·개별 일정 Check>

△ - 기존 일정
▲ - 추가'수정된 일정

△AW 2026 / 03.04~06

△East-West Biopharma Summit 2026 / 03.09~11
△인터배터리 2026 / 03.11 ~ 13
△엔비디아 GTC 2026 / 03.16~19
△방미사절단 대미투자 사업 제시 예정 / 03.23~29

<Signal Digest>

[주간 일정]
3월 6일 금요일
미국) 2월 고용동향보고서
일본 경제산업상, 미국 상무장관 회담
산업통상부, 회토류 관련 기업 현장방문
재정경제부,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기후부, 태양광 협회·단체 간담회
JYP 글로벌 걸그룹 GIRLSET, 신곡 'Tweak' 발표
에스팀 신규상장

[경제 일반]
코스피, 9.6% 올라 5,580대...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번째 상승률(종합)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45조2천420억원, 15조5천360억원으로 집계됐다.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31조2천680억원이다.

코스피 5500·코스닥 1100 극적 반등...'검은 수요일' 낙폭 회복

3일 연속 폭락은 없었다... 코스피 9% 폭등,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톱이 견인

"나 빼고 다 야수의 심장이었네"...개미들, 레버리지ETF에 1.4조 베팅

골드만삭스 "글로벌 증시 상승 사이클 막바지...단기조정 압력 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4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수익률 분포는 과거 역사적 궤적의 상위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지역의 밸류에이션 역시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낮아지며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정이 구조적인 약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시장은 높은 밸류에이션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결합되며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며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의 기반이 유지되는 한 이번 하락은 장기적인 약세장보다는 정상적인 조정 국면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JP모건 "삼전·SK하닉 여전히 좋다...코스피 7500 전망"
이날 JP모건은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6000포인트를 유지하며, 글로벌 강세장 복귀와 개인 자금의 국내 회귀가 지속될 경우 최대 7500포인트까지 상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

다.이어 "기업 이익 전망이 여전히 상향 추세이고,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과열됐던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이 조정 과정을 통해 역사적 평균 수준에 가까워지며 부담도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추천 업종으로 여전히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메모리 반도체를 꼽았다. 자사주 소각·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지주회사와 보험도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 '거래시간 연장 6월 시행'서 물러서...하반기 연기 가닥(종합)

[미중 패권전쟁]
中군용기 6일연속 '대만 출격' 중단...트럼프 방중 앞 수위 조절?

영국·필리핀서 잇단 '中간첩' 사건에...中 "악의적 연관 짓기"

[국제-미국]
Dow falls 1,000 points as oil resumes surge, hitting $80 a barrel amid Iran conflict
이란 분쟁으로 유가 급등 재개로 다우지수 1,000포인트 하락, 배럴당 80달러 돌파

미 주간 실업수당 청구 21만3000건...시장 예상치 밑돌아

Iran oil shock: Fed pick Kevin Warsh apt to cut interest rates anyway
이란 전쟁 유가 충격에도 연준 차기 의장 케빈 워시, 금리 인하 중단 안 할 것

美법원 "198조원 상호관세 납부액 돌려줘라"...환급 절차 개시 명령

[국제-유럽]
European stocks close lower as Iran war continues to dominate sentiment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중국]
[중국증시-마감]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상승...정책도 뒷받침

中 "올해 성장률 목표 4.5~5%"...안팎 도전 속 35년만에 최저(종합3보)

'5%대 성장' 고집 꺾은 중국, 국방비는 첫 400조원 돌파

[국제-그외]
[도쿄증시-마감] 중동 불안 재점화에도 닛케이 반등...1.90%↑

이란 물밑 협상, 이스라엘 정권 흔들기...전쟁 향방 '안갯속'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공습이 시작된 직후 제3국 정보기관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CIA)에 간접 접촉을 시도하며 전쟁 출구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

한 보복을 강조하면서도 물밑에서는 협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다만 이란은 즉각 부인하는 등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 접촉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美, 2차 세계대전 후 잠수함 어뢰 첫 사용...중동 긴장감 고조

미, 어뢰로 이란 군함 격침...파키스탄·캐나다도 참전 시사

[원자재]

U.S. crude oil tops $80 per barrel as escalating Iran war disrupts global fuel supplies
이란 전쟁 격화로 글로벌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미국 원유 배럴당 80달러 돌파

전쟁 나자마자 휘발유 1800원 돌파... 정부, 기름값 직접 통제한다

러, 유가 불안 속 "유럽행 가스 수출 중단 논의"
러시아 정부가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곧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박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에너지 기업들과도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전쟁 자금줄을 끊겠다며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지금 유럽 공급을 멈추고 새 시장에 진출해 자리잡는 게 유리할 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관련주: 지에스이,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한선엔지니어링, SNT에너지, 큐로홀딩스**

Gold rises on safe-haven bid from Iran war, firm dollar limits gains
이란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입찰로 금값 상승, 달러 강세로 상승 제한

[정부정책]

與 "PBR 1배 이하 밸류업 공시 의무화"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사주 처분, 사업구조 개선 등을 담은 계획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PBR 0.8배 이하인 기업에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연동하도록 했다. 당내에서는 설비투자가 큰 국내 제조업 특성상 PBR이 낮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상속세와 연동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과하게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삼전·닉스, 미국 매출만 100조"...메모리 반도체 가격 1Q도 2배
5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PC용 D램의 평균 계약(고정거래) 가격은 전분기보다 110~115% 상승했다. 직전분기 상승률(38~43%)보다 인상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AI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메모리 시장의 큰손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SSS)의 지난해 매출은 31조9541억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소재 법인 대상 매출도 19조1362억원으로 전년보다 23.2% 증가했다.
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 역시 AI 서버와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AI 칩(ASIC) 개발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맥쿼리가 301조원, 모건스탠리가 290조원, 씨티가 251조원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맥쿼리 272조원, 모건스탠리 179조원, 씨티 190조원이다. 국내·외 증권사 모두 내년 영업이익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소캠2 첫 양산...엔비디아 '베라' 탑재 경쟁 본격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192기가바이트(GB) 제품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고, 마이크론은 256GB 제품을 고객사에 샘플로 출하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192GB 소캠2를 공개하며 AI 메모리 포트폴리오 확대 방침을 밝혔다.

엔비디아가 이달 공개할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Vera Rubin)'의 중앙처리장치(CPU)에 소캠2 모듈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3사 모두 LPDDR5X 기반 구조로 개발한 만큼 성능 격차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베라 CPU에 각 회사 제품을 얼마나 배정하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3사 모두 준비는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생산능력이 큰 삼성전자가 물량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주: 티엘비,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써키트, 제주반도체, 쓰리에이로직스, 에이팩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엑시콘, 티에프이, 센서뷰, ISC, 오킨스전자**

젠슨황·최태원 美 심장부서 재회...HBM 판 키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차세대 엔비디아 플랫폼에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황 CEO와 논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가 탑재되는 '베라 루빈' 플랫폼의 개발 상황과 내년에 판매되는 베라 루빈 울트라 AI 가속기의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차세대 HBM인 HBM4E가 들어간다.

최 회장은 황 CEO와의 재회를 통해 반도체 외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SK그룹이 반도체뿐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양사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관련주: 한미반도체, 와이씨, 네오셈, 와이씨켐, 테크윙, 유니테스트, 디아이, 아이에스티이, 피엠티, 이오테크닉스, 켐트로스, 아이엠티, 제너셈, 워트, 엠디바이스, 미코, 마이크로투나노, 하나마이크론, 샘씨엔에스, 국전약품**

삼양엔씨켐, HBM 패키징용 PR 소재 올해 양산

업계에 따르면 삼양엔씨켐은 신사업 가운데 하나인 HBM 실리콘관통전극(TSV) 공정에 사용되는 PR용 고분자(폴리머)의 양산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1차 협력사인 PR 업체에 소재를 공급하고, 해당 협력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최종 고객사에 완성 제품을 납품하는 구조다.현재 PR 업체 2곳에 HBM 범프용 소재의 개발용 샘플을 공급해 품질(퀄) 테스트를 받고 있다. A사 맞춤형 제품은 올해 양산 시작이 목표다. B사용 제품은 내년 양산할 계획이다.

韓 유조선 7척 갇혀...반도체 헬륨 수급도 비상

선박 일정이 지연되면 반도체 단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외교통일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업계는 헬륨의 90%를 카타르에서 조달하고 있다. 헬륨은 노광장비 냉각, 웨이퍼 누설 테스트 등에 쓰이는 반도체 필수 소재다. 중동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멈출 가능성도 있다.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UAE)가 대표적 사례다. 김 의원은 "UAE를 중심으로 향후 10여 년 내에 7~8기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공급·수요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 **관련주: 원익머트리얼즈, 태경케미컬, 풍국주정, 케이씨, 에어레인**

[자동차]

[단독] 현대차 자율주행, 엔비디아 플랫폼 올라탄다

박민우 현대차그룹 첨단차량플랫폼(AVP)본부장(사장·사진) 겸 포티투닷 대표가 "현대차 AVP본부와 포티투닷, 모셔널의 자율주행 센서를 엔비디아 하이페리온10 센서 스위트(suite)로 통합해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엔비디아 출신인 박 사장이 직접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현대차와 엔비디아 간 밀월 관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어 박 사장은 자율주행 AI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와 협업해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사업자(MSP)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버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하면 장기적인 운송 데이터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주: 케이엔에스, 아우토크립트, MDS테크, 세코닉스,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페스카로, 오토앤, 엔비알모션**

[이차전지]

LG엔솔, 테슬라 물량서 LG화학 양극재 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롱레인지와 사이버트럭,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엘앤에프의 울트라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는 중고가 자동차 모델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배터리를 울트라하이니켈 제품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저가 모델에는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계속 사용한다.테슬라가 울트라 하이니켈을 전격 도입하기로 한 이유다. 테슬라에 이 제품을 납품하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울트라 하이니켈용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엘앤에프뿐이어서 모기업인 LG화학 제품을 배제했다.** LG화학은 올해 하반기 양산에 들어가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양극재 납품 기업 타이틀을 되찾을 방침이다.

에이프로, 테슬라용 각형 배터리 장비 낙점

[CO2 / 전력 / 에너지]

SK 투자 테라파워, 美 첫 상업용 SMR 건설 승인

SK(034730)그룹이 2대 주주로 있는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전 건설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미 당국이 SMR 등 첨단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SK이노베이션(096770)에 따르면 테라파워는 NRC의 승인으로 미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본격 착수한다. 미국에서 상업용 원전이 신규 건설되는 것은 10년 만이다. 테라파워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SMR 건설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테라파워에 나트륨 원자로와 핵심 기자재 공급 등을 담당하며 와이오밍주 SMR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HD현대(267250) 역시 테라파워의 첫 SMR 플랜트의 원자로 용기를 제작하는 등 핵심 파트너를 맡고 있다.

태웅, SMR에 이어 체코 진출로 미래 원전 신호탄 쐈다

[AI / 로봇]

'IPO 임박' 오픈AI, 매출 250억 달러 돌파...'챗GPT' 3년 만에 빅테크 반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의 연환산 매출은 올해 2월 말 기준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말 약 214억 달러(약 28조원)에서 약 17% 증가한 규모다. 연환산 매출은 특정 시점의 매출 흐름을 기준으로 연간 규모로 환산한 지표다.
이번 매출 규모는 AI 스타트업이 단기간에 빅테크 수준의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픈AI는 2022년 말 챗GPT 출시 당시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기업용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3년 만에 2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매출 기업으로 성장했다.시장에서는 이러한 성장세가 IPO 준비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상장을 염두에 두고 미국 로펌 쿠리(Cooley)와 왁텔(Wachtell)을 자문사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상장 시 기업가치는 최대 1조 달러(약 1330조원) 수준까지 거론된다.

[IT / 신기술]
메모리 가격 급등에..."올해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 7.3%↓"

[BIO / 의료AI]
위고비 특허 만료 스타트, 올해 복제약 잇따른다
초대형 블록버스터 비만약 '위고비' 특허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속속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과 인도 기업이 위고비 복제약 개발을 위한 최종 허가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 펩진과 삼천당제약도 특허 만료에 대비해 관련 복제약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5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는 이달 말 중국과 인도, 캐나다 등에서 만료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내 터키와 브라질 등으로 특허 만료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2028년, 미국 2032년, 유럽연합(EU)·일본 2033년 등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91억 덴마크크로네(약 18조원) 규모를 형성했던 위고비 시장이 복제약의 등장으로 쪼개질 전망이다.

[단독] 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에크노글루타이드' 적응증 확대 착수출처 :
HK이노엔이 도입한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에크노글루타이드(Ecnoglutide)'가 수면 무호흡증까지 적응증 확대를 시도하며 파이프라인 가치를 높이고 있다.

Lilly Employer Connect platform launches with over fifteen independent program administrators offering tailored obesity coverage options to expand access to patients
릴리 고용주 연결 플랫폼이 15개 이상의 독립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함께 출범하여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비만 보장 옵션을 제공합니다

[조선 / 해운]
HD현대 "필리핀 조선소 글로벌 MRO 거점으로 육성" 청사진 제시
HD현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현지 사업 청사진을 그렸다. HD현대필리핀 조선소를 유지·보수·운영(MRO) 거점으로 키우고 현지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품 보관시설과 인력양성 센터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필리핀 해군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로비에 LIG넥스원 가세, 자동차 대신 방산협력 중심 총력전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툭하면 막히는 호르무즈, 대안은 북극항로

- **관련주: 한화오션, KCTC, 동방, HMM, 흥아해운, STX그린로지스, 팬오션, KSS해운, 대한해운, 티케이케미칼, 케이엘넷, 토탈소프트, 태웅로직스, 인터지스, 한솔로지스틱스, 현대글로비스**

[우주 / 항공]

모든 길은 우주로 통한다…스페이스X '빅뱅'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24년 6130억달러(약 900조원) 규모에서 2040년대에는 1조달러(약 1470조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다음 수순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다. 당장 스페이스X 가치만 놓고 보면 IPO 흥행에 이견을 달긴 어렵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150억달러,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이 약 80억달러에 달했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이후 95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해 광대역 위성 인터넷 가입자 9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 위성 운영사다.

- **관련주: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증권, 아주IB투자, 스피어, 에이치브이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세아베스틸지주, 컨텍, AP위성, 와이제이링크, 모델솔루션, 센서뷰, 나노팀, 솔루엠, LK삼양, 루미르, 이녹스첨단소재, 신세계 I&C, LG에너지솔루션, 성우**

[코인 / STO]

금 주춤할 때, 비트코인은 치솟았다…'디지털 금' 논쟁 재점화

암호화폐 상승 요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전쟁 충격이 암호화폐에 대한 저평가 인식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 글래스노드는 보고서에서 "시장은 위기 가격 반영 국면에서 벗어나, 포지셔닝(가격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이 가격 움직임의 핵심 동력이 되는 조정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관의 저가 매수세도 힘을 보탰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약 6억80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표명한 것이 정책 불확실성 완화 기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독] 두나무·네이버 합병 좌초 위기…與 '지분 예외 규정' 열어주기로

정부·여당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는 규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통해 지분 상한을 넘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합병 가능성을 열어주기로 했다.

[IP/엔터]

넷마블 '스톤에이지 키우기' 양대 앱 마켓서 인기 1위

[국방 / 방산]

천궁-II 실전서 이란 미사일 90% 요격…K방산 '수주 잭팟' 청신호

최근 중동 충돌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군이 운용 중인 천궁-Ⅱ가 이란 측 미사일 요격 작전에 투입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천궁-Ⅱ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대상으로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실전 성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이번 전쟁에서 천궁-Ⅱ가 실전 능력을 입증하면서 중동 지역 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궁-Ⅱ는 2022년 UAE(약 4조 1000억 원)를 시작으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4조 3000억 원), 2024년 이라크(3조 7000억 원)가 잇따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내 수요를 입증했다.

"천궁-Ⅱ 더 빨리 달라"…UAE, 조기 공급 요청

UAE는 이란의 공격 이후 방공무기 수요가 급증하자 계약된 납기보다 앞당겨 천궁-Ⅱ 포대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공급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계약 국가에 공급해야 할 물량이 이미 정해져 있고, 군사 충돌이 격화한 중동 지역으로 장

비를 이송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UAE는 포대 조기 공급이 어렵다면 소진되고 있는 요격미사일이라도 납기보다 먼저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UAE는 2022년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II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된 상태다.

- **관련주: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엠앤씨솔루션, 아이쓰리시스템, 파이버프로, 퍼스텍, 한일단조, 코츠테크놀로지, RF시스템즈, 삼현**

[M&A / 주요 공시]

IMM PE, 대웅그룹 계열 시지바이오 인수한다...6000억 안팎

[단독] 토스, 미국 증시 상장 뒤 국내 상장도 추진한다

리벨리온, 코스닥 대신 코스피 IPO에 무게